

프로야구 6일 개막

(상) 새 규정과 예상 기록

2007년 프로야구가 오는 6일 전국 4개 구장에서 일제히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개막에 앞서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규정과 달성 가능한 대기록들, 그리고 새롭게 얼굴을 내미는 신인 및 용병 선수 등을 2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공인구 3~4mm 커지고 마운드 7.6cm 낮아져

▲달리진 규정 일반 재미가 두배 올 시즌 달라지는 규정 중 가장 주목되는 건 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바뀐 스트라이크존이다.

일요일 경기 오후 5시

올해부터 스트라이크존이 야구 규칙에 명시된 대로 어깨와 바지의 중간선부터 무릎 아래까지로 엄격히 적용되면서 좌우 폭이 좁아졌다.

그동안 홈플레이트를 살짝 걸쳐 빠져나갔던 스트라이크가 올해부터는 포수가 잡을 때 공이 홈플레이트 좌우 안쪽에 들어야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또 마운드 높이는 기존 13인치(33cm)에서 10인치(25.4cm)로 7.6cm 낮아지고, 국제규격에 따라 3~4mm 커진 공인구가 사용된다.

▲한 여름에 열리는 서머리그 도입 프로야구 열기를 고조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서머리그'가 열린다.

구단에 평일 홈 경기 조정 시간을 준 것도 새롭다. 삼성이 유일하게 홈 경기를 오후 6시에 시작하고 나머지 구단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30분으로 결정했다.

또 지난 해 오후 2시였던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기 시작시간이 오후 5시로 통일됐다.

▲예상되는 대기록도 풍성 양준혁(38·삼성)은 안타 54개만 보태면 사상 첫 개인통산 2천안타 고지를 밟는다.

지난 해 '꿈의 200승'을 달성한 '살아 있는 신화' 송진우(41·한화)도 쉽지는 않은 기록 사냥을 계속한다. 현재 201승을 기록 중인 송진우의 올해 도전 목표는 사상 첫 2천 탈삼진. 지난해까지 1천941개의 삼진을 뽑아내 59개만 보태면 또 한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구대성 통산 200S 기대

연속 기록에서는 이글스의 '수호신' 구대성(38·한화)은 통산 200세이브 등장에 13세이브만을 남겨뒀다.

또 장성호(30·KIA)는 양준혁이 아깝게 놓쳤던 10년 연속 3할 타율 달성에 출사표를 던졌다.

교타자인 장성호는 KIA의 전신인 해태 소속이던 1998년 타율 0.312를 기록한 이래 지난 해까지 9시즌 연속 3할대의 정교한 타격감을 뽐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50·SBS스포츠)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준준결승 3차전<오리온스-삼성>(18:50·Xports)

▲K리그 컵대회<수원-광주>(19:00·MBC ESPN)

▲삼성 하우젠컵<울산 현대-인천 Utd>(19:20·KBSN Sports)

5일(목)

▲메이저리그<탬파베이 데블레이스-뉴욕 Y>(01:45·KBS2·01:55·Xports)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로마-맨체스터Utd>(03:30·MBC ESPN)



금빛 과녁을 향하여

울산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07 양궁 월드컵 및 올림픽제패기념 제7회 코리아국제양궁대회에서 한국 컴파운드 여자대표 선수인 서정희(오른쪽 첫번째), 김효선(세번째) 선수가 힘차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연남뉴스

신한은행 "끝내겠다" vs 삼성생명 "막판 가자"

안산 신한은행은 1승만 더하면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하고 용인 삼성생명은 2연승을 해야 챔피언 타이틀을 2년 연속 손에 넣는다.

4일 오후 2시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삼성생명배 2007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챔피언결정전 4차전을 앞두고 2승 1패의 신한은행은 다소 느긋한데 반해 1승 2패의 삼성생명은 비랑 끝에 풀린 분위기다.

이번 정규리그에서 우승한 '호화 군단'의 신한은행은 1차전에서 삼성생명에 밀미를

오늘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4차전

잡혔지만 정에 멤버를 총동원, 전면전에 나서 2, 3차전을 가져왔다.

신한은행 이영주 감독은 3차전 승리 후 스스로에게 '자만심 경계령'을 내렸다.

그에게는 정규리그 때 볼 수 없었던 맹활약을 해주는 하은주와 최윤아의 활약이 고맙기 그지 없다. '불혹'을 바라보는 용병 태즈 맥윌리엄스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 놀

라울 따름이다. 또 무릎 연골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은 채 투혼을 발휘하는 '막내니' 존재 자체가 든든하다.

'과감치'가 된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삼성생명의 정덕화 감독은 4차전에 앞서 선수들에게 '정신력 무장'을 주문하는 한편 공격 패턴을 재점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마뜩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쌍포'의 위력이 살아나기를 정 감독은 고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V10을 기원하며

KIA타이거즈가 3일 오후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2007시즌 출정식을 가진 가운데 서정환 감독(왼쪽)과 선수들이 팀의 우승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있다.

KIA 2007 팬북 발간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3일 2007시즌 인쇄물을 발간했다.

발간된 인쇄물은 팬북 1만부, 미디어가이드북 300부, 프레스집 100부, 경기일정 포스터(4~5월분) 3천부 등이다.

2007시즌 팬북의 특징은 다이어리 팬북으로 밴드를 이용, 기능성과 실용성을 높였고, 양장제본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표지모델은 붉은색 원형 유니폼을 입고, 사랑의 하트 표시를 한 어린이 팬 3명과 호돌이 캐릭터가 등장했다. 올 시즌 팬북의 테마는 'Strong KIA TIGERS'로 팬들에게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고 팀에 대한 신뢰감과 친근감을 담았다.

또 미디어가이드북엔 선수단의 프로필과 연도별 성적 등 다양한 기록이, 프레스집엔 KIA 선수들의 언론기사가 담겨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페더러·이신바예바 '올해의 스포츠맨'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왼쪽)와 미녀세 엘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오른쪽)가 로리어스 재단이 뽑은 올해의 스포츠맨 남·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3일(이하 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호주오픈테니스 우승으로 10번째 메이저대회에 제패한 페더러는 3년 연속 최고의 남자 선수로 인정받았다. 페더러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자동차 경주 포블리언(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허(독일)와 경합한 끝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자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을 20차례 바꾼 이신바예바는 여자 선수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올해의 팀에는 작년 독일월드컵축구 우승팀 이탈리아가 뽑혔고 올해의 컴백상은 호주오픈 여자단식에서 우승하며 재기에 성공한 세레나 윌리엄스(미국)가 받았다.

독일월드컵축구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프란츠 베크만워는 로리어스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로리어스 상은 전 세계 700여 스포츠 담당 언론인과 로리어스 재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마린보이' 박태환 CF 요청 쇄도

호주 멜버른에서 막을 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수영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에게 광고, 방송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3일 박태환 아버지 박인호(56)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딴 뒤 각종 기업체에서 광고모델을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모 은행 호주 시드니 지점에서는 직원들이 멜버른의 박태환 숙소까지 직접 찾아와 아버지를 만나고 갔을 정도다.

아직까지 박태환의 광고 출연과 관련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박인호씨는 "많은 곳에서 광고모델 제의가 들어왔으나 모든 건 한국에 들어가서 결정할 것"이라며 "태환이의 이미지와 가장 맞는 두 세 곳을 골라 출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사도 '박태환 잡기' 경쟁을 벌이며 박인호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자동차 기름값 매월 103~280만원 절약!!

디젤에스형 : 자동차 기름값 50% 절약!! 410마력 대형버스 디젤에스형 적용전 3.5km/L!! 적용후 최고연비 7.2km/L!!

Advertisement for Hyundai Diesel engines, featuring technical specifications, fuel economy data,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yundai dealers.